미국「컨스트럭션이퀴프먼트」지로부터 세계최우수건설장비 에선정

이홍선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본부 상무

"산학연 협동으로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현대중공업이생산하는굴삭기가세계최고 권위의건설장비전문지인 미국의「컨스트럭션 이퀴프먼트(Construction Equipment)」지로부터 '세계 최우수 건설 장비 에 선정되었다. 이번에세계 최우수건설장비에선정된제품은현대중공업건설장비부문의주력제품인7시리즈(7series) 굴삭기로서, 5톤급소형부터 45톤급 대형까지 총 13종이 시판되고 있다. 이제품은이미세계시장에서1만여대이상팔린건설장비의' 명품 '으로손꼽힌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로 여섯 번째 이 상을 수상하였다.

「컨스트럭션 이퀴프먼트」지는 매년 그 해에 생산된 전 세계 약 2,000여 종의 각종건설장비중에서기술, 디자인,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장 우수한 건설 장비들을 엄선해세계최우수건설장비로선정하고있다.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은 현대중공업의7시리즈굴삭기는성능과내구성이우수하고자기진단기능등첨단시스템이내재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세계 최우수 장비로 선정되었다. 또한, 기존의장비에비해힘이좋고작동이부드러우며운전석의안전성이뛰어난데다, 특히연비효율이높아다른제품보다경제성이뛰어난것으로평가되었다.

이홍선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본부 상무는" 개발 과정에서 첨단 기법(3D CAD 설계 등)의 활용과 개발 기간의 단축, 설계 신뢰성 향상과 함께 환경 친화적이고 고객

지향적인장비개발에주력함과동시에독자적최신유압시스템을개발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상무는7시리즈굴삭기를개발하고기획 · 연구하면서 '최고의 작업 성능 '과 '고객에대해최고의가치제공 '이라는목표아래첫째국내는물론해외수출지역별법규만족을 위해 배기 가스 및 소음 규제 등 환경 및 안전성 최대화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운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테리어의 고급화와 에어컨의 성능 증대, 저소음과 넓은 가시성을 겸비한 인간 공학적 운전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기능과 컴퓨터를 활용한 최적의 작업 성능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 내구성과 정비성 향상에도 주력했음은물론이다.

이상무가7시리즈굴삭기의또다른장점으로꼽은부분은바로' 디자인 '이다. 사실지금까지국내건설기계는성능과가격경쟁력은 뛰어나나 디자인 면에서는 취약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 그러나이상무는' 최고의 작업 능률은 최적의 디자인을 통해완성된다 '는판단아래예전3시리즈부터디자인에대한꾸준한관심과노력을기울였다.

그 결과 강인한 회사 고유 이미지를 구현할뿐만아니라운전실내부도운전자에게 최상의 운전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완성해냄으로써지난해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 ' 상품에 선정돼' GD마크 를 획득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수상하기도했다.

이 상무는 중국 등지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1위를기록하고있지만더나아가아시아, 미주, 유럽전체시장을석권하기위해서는" 산 · 학 · 연 · 관이모두 협력하여' 유압기술 ' 등의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할것 "이라고강조했다.

한양대학교기계공학과를졸업한이상무는 29년간 건설 기계 분야에만 매진하면서 선진 외국과의 기술 제휴 없이 독자적으로 고유 모델 개발에 착수, 굴삭기 29모델, 휠로더 9모델 등을 개발해냄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설 기계 개발 전문가로 꼽히고있다.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